

2022년 장애인식개선작품공모전 작품집

# 함께하는 우리, 차별없는 세상을 위하여



# 2022 장애인식개선 작품 공모전

## 공모 주제

- ▷ 장애인식개선과 관련된 창작물
- ▷ 장애이해 및 인권감수성 표현
- ▷ 다양성 존중을 통한 화합

## 공모 결과

- ▷ 유치부
  - 그림 및 미디어: 42작품
- ▷ 초등 저, 고학년부
  - 그림 및 미디어: 25작품
  - 글: 17작품
- ▷ 중등부
  - 그림 및 미디어: 9작품
  - 글: 5작품
- ▷ 고등부
  - 그림 및 미디어: 7작품
  - 글: 9작품
- ▷ 대학, 성인부
  - 그림 및 미디어: 10작품
  - 글: 4작품

2022 장애인식개선작품공모전 작품집  
함께하는 우리, 차별없는 세상을 위하여

발행인: 이승한 | 편집인: 김명빈 | 발행일: 2022. 11.

충청북도장애인종합복지관 (충북 충주시 도장관주로 34-17)  
TEL. 043-856-1100 | FAX. 043-856-1103  
www.cbr.or.kr

- \* 장애인식개선 작품 공모전을 통해 접수된 작품 중 그림 및 미디어 23작품, 글 7작품을 실었습니다.
- \* 본 작품집은 미리캔버스로 편집하였으며, 충주시 보조금으로 제작되었습니다.
- \* 본 작품집에 실린 작품 및 디자인에 대한 저작권은 충청북도장애인종합복지관에 있으며, 저작물에 대한 무단 도용, 사용을 금합니다.

# ◆ 그림 및 미디어 부문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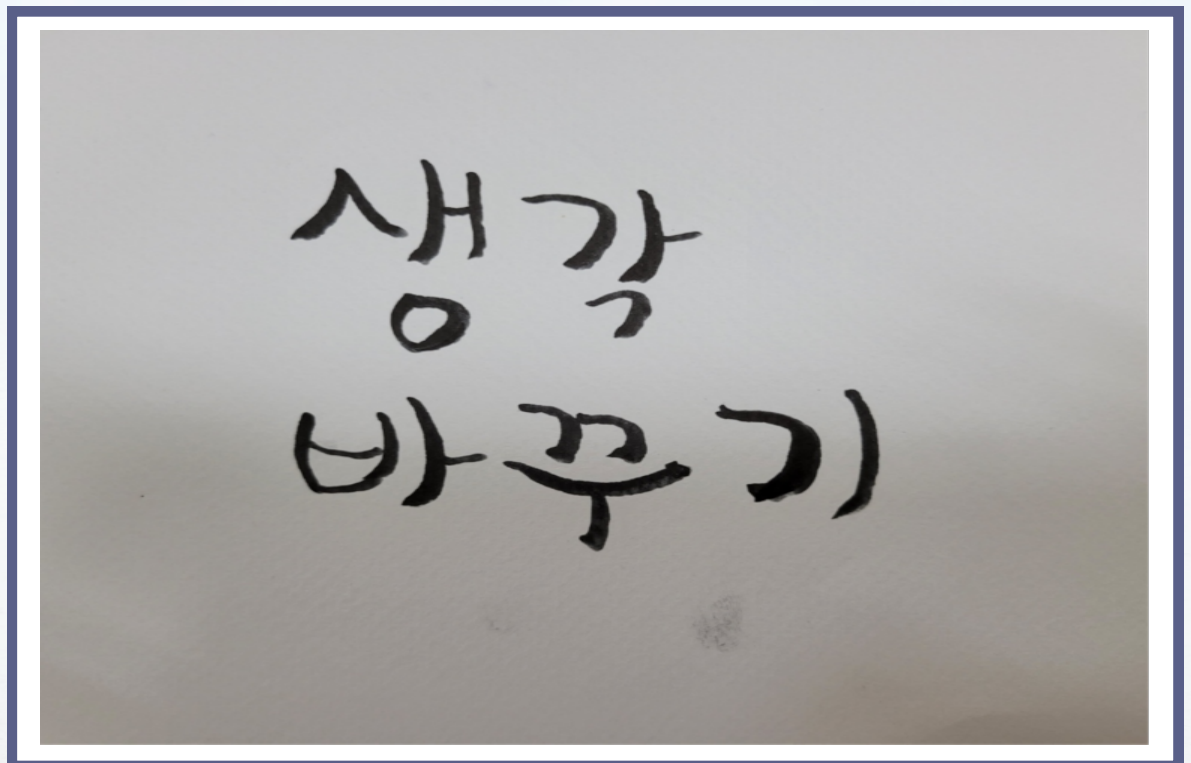
보슬유치원 김해솔 | 사이좋게 놀아요



보슬유치원 윤소희 | 사랑이 가득한 유치원



용산초 박은서 | '틀리다'가 아니라 '다르다' 입니다



용산지역아동센터 황지은 | 생각 바꾸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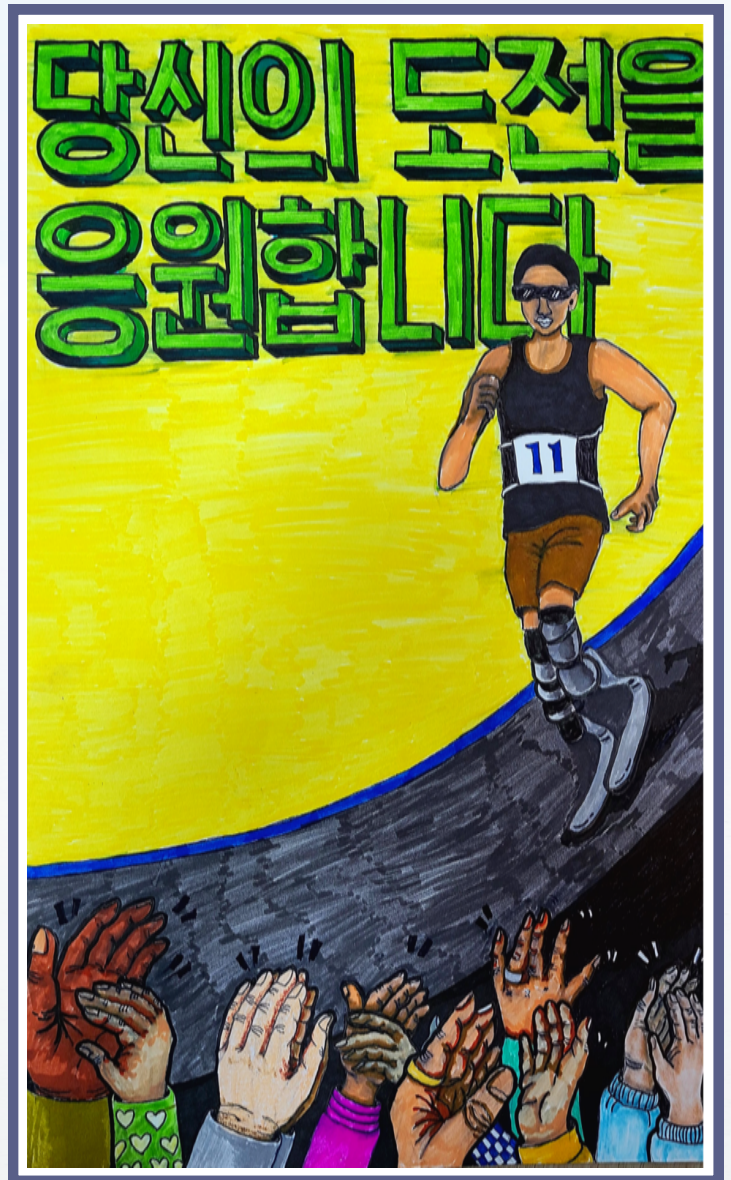
용산초 박시우 | 마음의 눈으로 보면 장애는 없습니다



용산초 허고은 | 함께하는 사랑의 벽화 그리기



한림디자인고 안유희 | 아름다운 삶



중앙중 김민서 | 당신의 도전을 응원합니다



## 안경선 | 모두의 해방을 위하여

때로는 사람들이 무섭다

엄마들이 이런 델 왜 와?  
성소수자들 그만 좀 기어나와라

시끄러워 노키즈존 필요해

장애인 살기 편해졌지 이거 역차별이야~

저렇게 못생긴 애가 성범죄를 당했다

언제 내가 될지도 모르는 남의 모습을 거침없이 평하하고 차별할 때

엘리베이터

거 좀 기다렸다가 타요

운이 좋아 살아남았을 뿐인데 마치 특권이라도 가진 것처럼

이게 나라고?  
웃기지마 누가 장애인이 된다고 그래?

남의 모습에서 나를 보지 못한다는 건

어떤 기준을 설정하냐에 따라 누구든 소수자가 될 수 있다

안경 쓴 사람, 병력, 여자, 장애인, 50대, 편부모 가정, 알레르기, 남자

새로운 기준, 더 많은 차별은

제 얘기 좀 물어주세요  
저 좀 도와주세요  
저 좀 도와주세요

결국 나를 차별하는 세상을 만들 것이다

더 많이 듣고 더 많이 연대하고

다름을 인정하고 잘못을 사과하고

그리고 많은 건 많다고 말하게

정상과 비정상을 나누는 모든 기준에 반대하는 것

노키즈존 폐지, 여성혐오 반대, 키오스크 반대, 인종차별 금지, 장애차별 반대, 차별없는 가게, 배리어프리, 차별금지법, 안전하게 말할 권리, -- 다른 것은 없다, 채식선택권, 비장애중심주의의 반대, 종차별 반대

우리 모두가 살아남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모두가 해방되지 않으면  
무엇도 해방될 수 없으니



한림디자인고 이서연 | 공주의 소망



미덕중 이하람 | 흰 지팡이에 핀 봄



성남초 이수연 | 모두가 메달리스트



충청북도장애인종합복지관 오홍근 | 이동은...

한림디자인고 강교현

장애인식가이드북







용산초 이소연 | 장애가 있으면 어때? 편견을 깨버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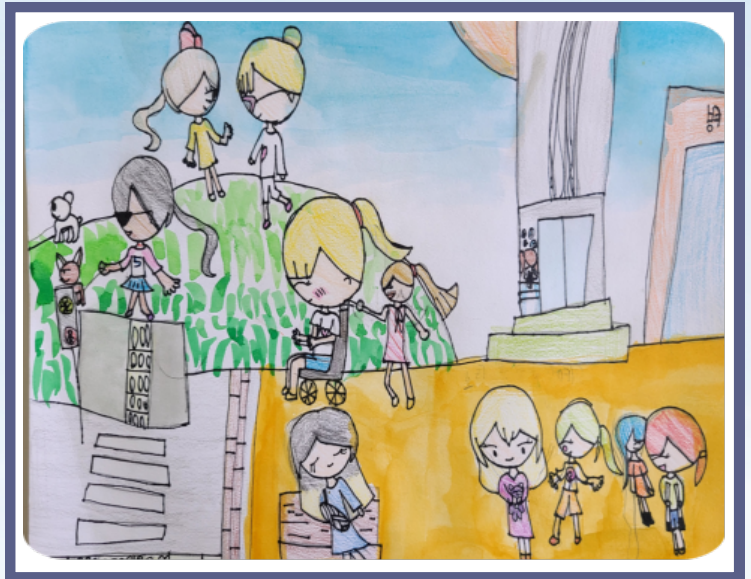
용산초 김하은 | 너와 나 우리 모두 함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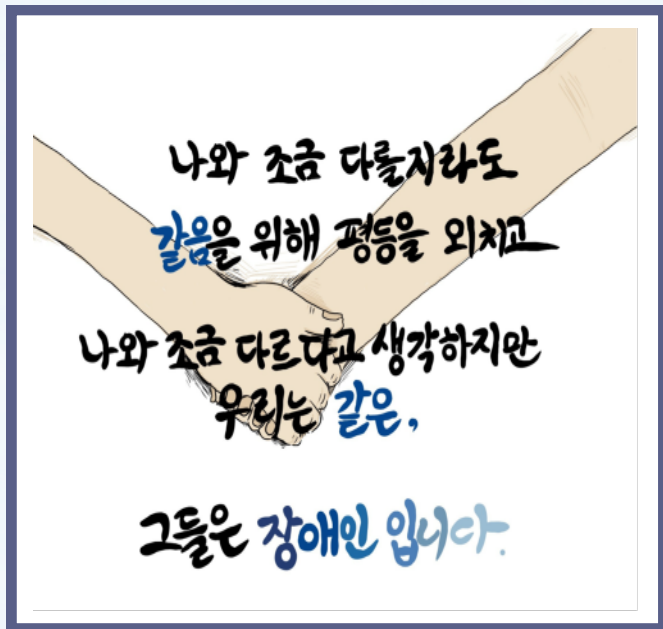
충주북여중 박소정 | 장애로서가 아닌 능력으로부터



성남초 김시연 | 우리가 느끼는 건 다르지 않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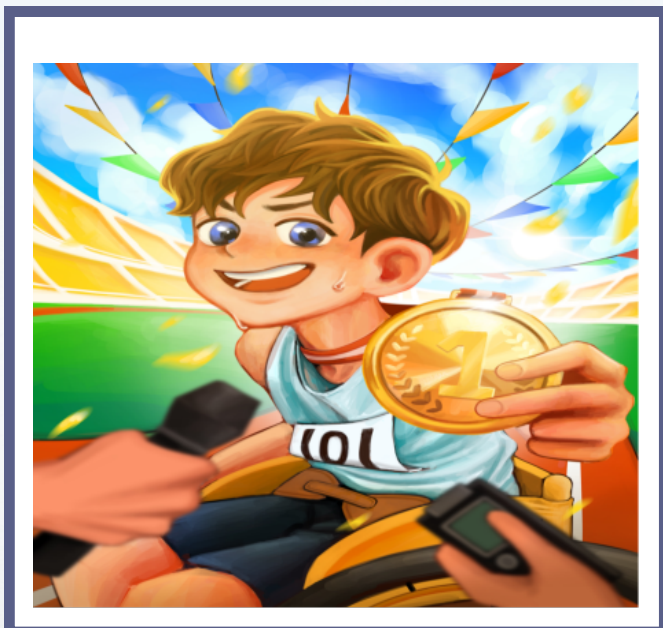
탄금초 윤은서 |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해요



이희교 | 우리는 같다



보슬유치원 최은솔 | 무지개처럼 다양한 우리들



한림디자인고 이유진 | 성공=평등



용산초 최경은 | 차별 없는 시선

# ◆ 글 부문 ◆

## 그런 친구

탄금초 | 이지호

우리의 옆에  
특별한 친구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친구

우리가 친구의  
행복 지킴이가 되어야 해!

친구가 슬플 때  
출동!

친구가 힘들 때  
출동!

어느샌가 우리는  
서로 마음을 나누는  
그런 친구야.



## 단 하나의 열쇠

충일중 | 최준환

학교 점심시간  
혼자 앉아있는 친구

말을 걸어도 조개처럼  
입을 짹 다물었다.

그 이후 매일 연가시처럼 붙어 다닌 결과  
내게 서투르고 발음이 정확하진 않지만  
먼저 인사해주는  
제일 친한 친구가 되었다.

누구든 말을 걸고  
관심을 주면 마음을 닫아버린  
친구의 마음을 활짝 열어버리는  
열쇠가 된다.

지금은 남들처럼 보고 있지 않고  
굳게 닫힌 문을 여는  
단 하나의 열쇠가 되어있다.



# 4월 20일은

남산초 | 강혜영

4월 20일이 되면  
어린이들은 웃음꽃을 피어요

예쁜 병에 꽃으면  
얼마나 예쁠까요?

4월 20일이 되면  
아이들 등 속에 있던  
웃음 날개들을 활짝 펴고  
하하 호호 하하 호호  
즐거운 마음으로  
팔랑팔랑 날아다녀요

4월 20일이 되면  
장애인 친구들을 생각해요



## 장애인의 날

남산초 | 강혜원

장애인의 날 소중한 날  
하하 호호 하하 호호  
신나게 함께 놀자

봄꽃이 예쁜 4월 20일  
우리 모두 주인공인 날

웃음소리 팡팡팡 팝콘처럼  
새들도 신나서 짹짹 거리고  
꽃들도 신나서 활짝 웃네



# 무 지 개

중산고 | 노아진

비 그친 뒤  
파란 하늘에 피어난  
찬란한 무지개

장애로  
너와 나를 구분 짓는  
편견이라는 마음 속 보얀 먼지  
한여름 단비에 전부  
씻어내렸어

그러니  
그 밑에서 손과 손 잡은 채  
서로를 보며 미소 짓자

서로 달라서 더 예쁘고  
다르지만 하나인  
이 무지개

어쩌면 너와 나도  
무지개의 일부일지도  
그렇지도

온통 같은 색인 무지개보다  
다름이 어우러져 더 찬란한  
이 무지개가

파란 하늘을  
그리고 내 마음을  
더 빛나게 할 거야.



# 장애인이 어우러져 살 수 있는 사회

김미선

장애인, 그들의 삶에 난 크게 관심이 없는 사람이었다. 길을 가다 휠체어를 타거나 몸이 불편한 사람을 볼 때면 안쓰러운 마음이야 생기지만 적극적으로 도와주거나 관심가지 않았고 그냥 지나치는 쪽을 택했다.

사회생활을 하며 장애라는 것이 신체장애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변에 지적장애인도 있고 특히나 경계선에 있는 지적장애인들을 종종 마주하게 되었다. 사느라 바빠 내 아이에게 신경을 덜 써서 좀 더 빨리 알아차리지 못했을까 아니면 알면서도 외면하고 싶은 현실이었을까 현재 고등학교 1학년 큰 아이에게 지적장애가 있다는 것을 중학생이 되고서야 인식하게 되었다. 그도 그럴것이 깊은 대화를 나누지 않고는 우리 아이에게 뭔가 문제가 있다는 것을 가까운 친구나 친척들조차도 감지하지 못한다.

이것이 경계선 지적장애... 어찌보면 확연히 두드러지지 않기에 장애인으로 보이진 않지만 일상생활에 어려움이 있는 그런 상태이다. 그래서 모르는 사람들은 재는 애가 왜 저래 하며 그들이 의도하지 않은 상황들에 대해 오해를 하기도 한다, 장애인에 대해 관심이 없던 나에게 내 아이의 장애진단은 충격적이었고 시간이 지나고 있지만 지금도 오롯이 받아들였다고 말하기는 힘든 것 같다. 나아지지 않을까하는 희망과 바람으로 아이를 대하며 하루하루 살고 있지만 분명 한계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 그리고 그 한계도 내가 설정해 놓은 것이라는 것도.

내 아이의 장애 진단은 나의 생활과 가치관에 많은 변화를 주었다. 아이 공부에 목숨 거는 주위의 혼한 엄마들 사이에서 나는 생각한다. 정말 중요한 건 지금 옆에 있는 내 아이의 건강과 바람직하게 사회 생활하며 살아갈 수 있는 힘이라고. 그래서 아이가 앞으로의 날들에 자립할 수 있는 힘을 기를 수 있도록 격려해주고 응원해주고 있다.

장애인들이 사회구성원으로서 자연스럽게 섞여 어우러질 수 있는 그런 날이 하루 빨리 오기를 오늘도 난 기도한다.

# 별 빛 한 줄기

중앙탑중 | 이유진



울긋불긋, 붉게 물든 하늘에  
평소와 다를 것 없던  
학원 가는 길

어쩐지 오늘따라 조용해  
주위를 둘러보니  
가장자리에 낯선 친구가  
앉아 있었다.

말하는게 힘들었던 그 친구에게  
서로 머뭇머뭇 다가가지 못하고  
멤돌기만 했던 우리들

어느새 어둠이 덮이고  
반짝반짝 빛나는 별들이  
고개 내밀기 시작했다.

누군가 그랬다.

밤하늘의 별이 빛나는 것은  
우주가 어둡기 때문이라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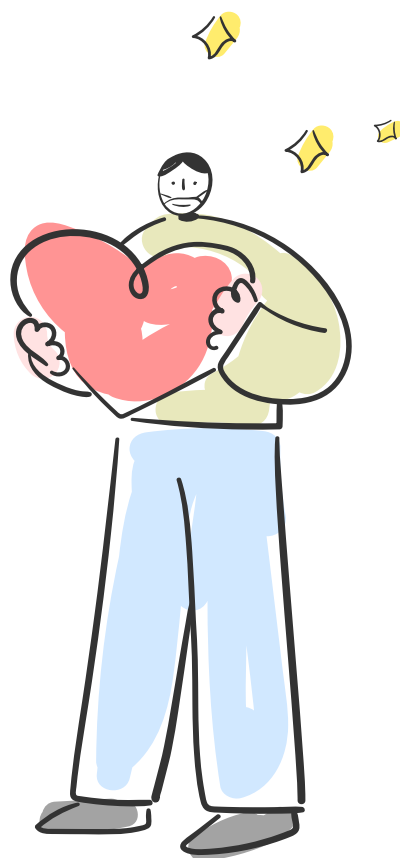
네가 눈에 띄었던 것은  
우리의 마음이 어두워서야.

그 순간 작게 마음을 밝힌 불빛에  
한번 용기를 내어본다.

"이따가 같이 갈래?"

내 마음 속에  
별빛 한 줄기 스쳐 간다.

장애가 장애가 되지 않는 사회,  
보통 사람들의 보통의 사람 살이를  
지원합니다.



함께하는 복지 행복한 장애인  
충청북도장애인종합복지관